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<small>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</small>
보도	2018.10.29.(월) 09:20	배포	2018.10.26.(금)		
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담 당 자	김 영 대 사무관 (02-2100-2730)
	균형위 총괄정책과장 민 경 신(02-2100-1131)		김 윤 하 전문관 (02-2100-1133)

제 목 :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‘지역재투자 평가제도’ 도입

◆ 금융위원회(금융위)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*(균형위)에 「지역재투자 평가제도」 도입방안을 보고·확정하였음

*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(10.25(木) 16:00~18:00, 정부서울청사 4층)

⇒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(자산 1조원 이상 및 복수영업구역 운영)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하여,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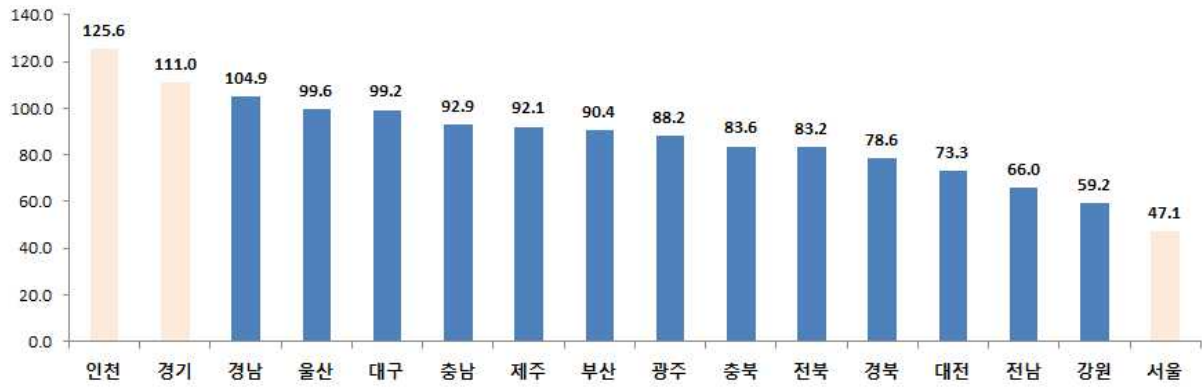
1. 제도 도입 배경

□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고,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음

○ (자금유출입 현황) 인천·경기 외 대부분 지역에서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, 지역자금이 지역으로 다시 환류되기보다 금융기관에 축적되는 모습

* 다만, 지방소재 대기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으로 수도권 예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일부 있음

<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비율(예대율, %) >



* (참고) 서울은 대기업·부유층 등 자금이 집중되어 수신(예금)이 여신(대출)보다 크게 나타남

- **(실물경제와의 비교)** 지방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% 수준*이나 여신비중은 40% 미만 수준**으로, 지방이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다소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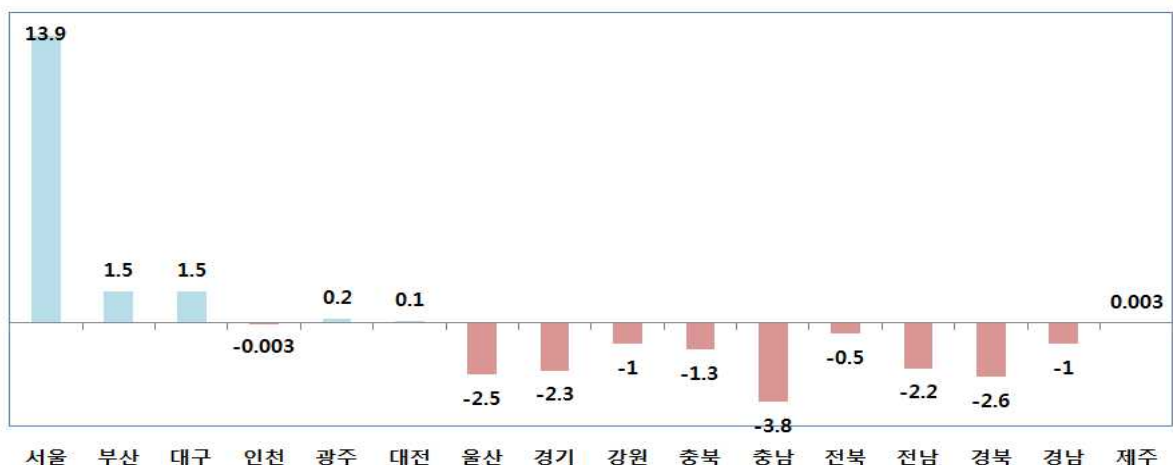
*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(GRDP) 비중 : 50.6%

** 예금취급기관의 총여신 대비 지방 여신 비중 : 39.1%

예금취급기관의 총기업여신 대비 지방 기업여신 비중 : 36.9%

- 고신용 기업 및 가계가 많은 서울로 여신이 집중됨에 따라, 지방의 경우 대체로 실물경제 비중(지방총생산)에 비해 금융지원 비중(여신비중)이 충분치 못한 상황

<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여신비중(금융지원) - GRDP 비중(실물경제)(%) >



□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

- 이에 금융위·균형위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

⇒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(대출)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

- 특히, 금융접근성이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신용제공 유인을 제고

2. 제도 주요 내용

◆ 지역재투자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결과를 공개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며,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

1] 지역재투자 현황 평가

- **(평가대상)** 은행* 및 대형 저축은행(복수 영업구역·자산 1조원 이상)

* 자금의 역외유출 우려가 적은 외은지점 및 인터넷 전문은행 제외

- **(평가지역)**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·도

- **(평가주기)** 1년 주기 평가

- **(평가주체)** 금융위, 금감원, 금융연, 지역 대표 등 민·관 합동 평가

- **(평가내용)**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, 지역 중소기업·저신용자 대출 실적, 지역 내 인프라(지점·ATM) 투자수준 등을 종합 평가

* 주요 평가항목(예시) : 지역별 예대율, 지역경제 대비 여신과리율, 지역별 중소기업예대율, 지역별 가계대출 대비 서민대출, 인구대비 점포·ATM수 등

☞ [참고2]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(안)

② 평가 결과의 활용

- 개별지역 실적 및 총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각 5등급으로 구분(최우수~미흡)하여 공개하고 인센티브 등 부여 추진

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대외 공개

②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평가에 반영

③ 평가 결과를 지자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 기준에 반영 추진(지자체 · 행안부 · 법원 협의)

* (예) 선정 기준 中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에 반영

④ 평가결과를 토대로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시 검토

3. 추진 계획

- 금융위 · 균형위는 향후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하위규정 정비 (감독규정 개정) 및 관계기관 협의* 등을 완료할 계획('19년초)

* 지역 금고 ·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 관련 관계기관 협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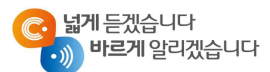
- 평가의 세부항목, 배점, 평가방법 등 세부 내용 확정(~'19.上)

- '19년 중 시범 실시를 거쳐, '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하여 금융회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참고 1

예금취급기관의 자금유출입현황 및 실물경제와의 비교

* 보도자료 통계 출처 : 금융연 ‘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’, ‘17.12

□ 자금유출입 현황 관련 통계

예금취급기관*의 시도별 예금대비 대출비율
(2016, 한국은행, 단위 : %)

서울	인천	경기	부산	대구	광주	대전	울산
47.1	125.6	111.0	90.4	99.2	88.2	73.3	99.6
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59.2	83.6	92.9	83.2	66.0	78.6	104.9	92.1

* 예금은행+비은행금융기관

** 세종시는 과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충남에 포함하여 계산

□ 실물경제와의 비교 관련 통계

예금취급기관*의 시도별 여신비중과 GRDP비중의 괴리
(2015, 한국은행 · 통계청, 단위 : %)

서울	인천	경기	부산	대구	광주	대전	울산
13.9	-0.003	-2.3	1.5	1.5	0.2	0.1	-2.5
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-1.0	-1.3	-3.8	-0.5	-2.2	-2.6	-1.0	0.003

* 예금은행+비은행금융기관

** 세종시는 과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충남에 포함하여 계산

*** 계산방식 : 시도별 여신/전체 여신 - 시도별 GRDP/전체 GRDP

참고 2

지역재투자 평가 부문 및 평가 항목 [안]

평가 부문	평가 항목
1. 지역자금 역외유출 (50%)	①지역별 예대출 ▶ 전년 대비 개선수준
	②지역경제 대비 여신과리율 ▶ 지역경제 대비 기업여신과리율
	③지역 여신 증가율
2. 중소기업 지원 (15~20%)	①지역별 중기대출/총 여신 ▶ 중기대출 차주수 증가율
	②지역별 중기 경제기여도 대비 중기대출 과리율
	③지역 중기대출 증가율
3. 서민대출 지원 (15~25%)	①지역별 서민대출/가계대출 ▶ 서민대출 차주수 증가율
	②서민대출 증가율
4. 인프라 투자 (0~5%)	①인구 천명당 점포수 ▶ 점포 신설 (가점)
	②인구 천명당 자동화기기 수 ▶ 자동화기기 신설 (가점)
5. 지역금융 지원전략 (10%)	①해당 지역 경제기여도 ②지역 기업(사회적 기업 포함) 금융환경 기여도 ③지역 서민 금융환경 기여도 ④기타 지역금융 지원전략

* 현재 검토 중인 예시(안)이며, 세부항목 논의 과정에서 평가 부문, 항목 및 배점은 최종결정될 예정